

요약

Swiss Re에 따르면 2025년 세계경제는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인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탈세계화, 탈탄소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화, 부채증가 등 구조적 테마가 경제 전망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세계 생명보험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의 연금시장 성장으로 2024년 5%, 2025년 3%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됨. 세계 손해보험 시장은 위험 가격 재조정과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2024년 4.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예정이나 자연재해와 법률비용 상승 등의 영향이 계속될 전망이다

- Swiss Re의 보고서¹⁾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세계경제는 각각 2.8%, 2.7%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방리스크가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5D의 구조적 테마가 경제 전망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코로나19 이전 10년간의 평균 성장률(3.1%)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지정학적 리스크, 파괴적인(Disruptive) 정책 변화²⁾,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함
 - 미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로 지역과 중국 등은 관세 등 무역 긴장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5D란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탈탄소화(Decarbonisation),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s), 디지털화(Digitalisation), 부채증가(Debt)이며,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메가트렌드를 의미함
 - Swiss Re가 2022년 글로벌 전망에서 분기화(Divergence), 디지털화(Digitalisation), 탈탄소화(Decarbonisation)의 3D를 처음 제시했는데, 이번 2025년 전망에서 추가·수정된 5D가 어떻게 진화해오고 있는지 평가함
 - 중기적·거시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탈세계화는 GDP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탈세계화, 탈탄소화, 부채증가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25년과 2026년 글로벌 총 수입보험료의 실질성장률은 평균 2.6%로 예상되며, 꾸준한 글로벌 경제 성장, 탄력적 노동 시장,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 높은 장기 금리가 보험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24년(4.6%)보다는 낮지만 지난 5년(2019~2023년)간의 평균 1.6%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22년 인플레이션 전까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전망
 - 2024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건강 포함)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43%와 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비율은 향후 10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1) Swiss Re(2024. 11), "Global economic and insurance market outlook 2025-26"

2) 관세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의미하며, 무역전쟁 등의 결과로 나타날 것을 경고함

- 생명보험 시장은 저축성 상품에 대한 강한 수요와 연금시장 성장에 힘입어 2024년에 10년 만에 가장 높은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2026년 생명보험료도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환경이 저축성 상품에 대한 강한 수요를 이끌었음
 - 다만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저축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쏠림 현상은 점차 사라지고 2025년부터 저축성과 보장성 부문의 성장률은 결국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³⁾
 - 2024년 미국의 개인연금 판매액이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국과 미국에서 3천억 달러 이상의 대량 연금 이전(Bulk Annuity Transfers)이 예상되는 등 연금시장의 성장이 생명보험 시장에 순풍으로 작용할 예정임
 - 연금 이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DB형 연금 부채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절차이며,⁴⁾ 사용자는 이를 통해 장수리스크에 따른 연금지급 위험⁵⁾을 보험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위험을 완화(De-Risking)할 수 있음
 - 금리가 인하되면서 고정금리 연금 판매는 둔화되고 지수형 연금(Indexed Annuity)⁶⁾으로 관심이 이동할 전망이다

- 손해보험 시장의 경우 최근 위험 가격 재조정(Re-Pricing of Risk)과 인플레이션 완화의 영향으로 손해보험료가 4.3% 성장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자연재해와 법률비용 상승 등의 영향이 계속될 전망이다
 -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최근 자연재해의 빈도 증가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고금리 환경 등 리스크 요인들을 보험료에 반영해왔는데, 이를 위험 가격 재조정이라고 함⁷⁾
 - 이러한 위험 가격 재조정과 최근 인플레이션의 완화 기조로 인해 손해보험시장에서 향후 2년간 자기자본이익률이 10%로 예상되는 등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허리케인 등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손실이 2020년 이후 5년 연속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재물보험의 가격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에서는 법률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보험청구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사회적 인플레이션⁸⁾⁹⁾이 계속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등에서도 책임보험 청구가 증가하고 있어 책임보험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사회적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배심원단이 내린 대규모 보상 판결 때문이며 다른 국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¹⁰⁾ 그 정도가 덜할 것으로 전망됨

3) Swiss Re는 이를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의 새로운 성장 균형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보고 있음

4) Buy-in: 사용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구매하여 일부 또는 전체 연금 지급을 보장받음(사용자가 여전히 지급관리 수행)

Buy-out: 보험회사가 사용자의 모든 책임을 인수하여 직접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함

5) 근로자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회사 사정과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무적 리스크를 말함

6) 지수형 연금은 S&P5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성과에 따라 이자율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으로, 금리에 덜 민감한 특징을 가짐

7) 2024년 손해보험 보험료는 4.3% 성장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최고치이며 지난 5년간(2019~2023년) 평균 3.1%보다 높은 수치임

8) 제3자 소송 금융, 법률서비스 광고 과다 지출, 대기업 보험회사에 대한 소송 규모 확대 등이 사회적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킴

9) 2017~2022년 동안 미국의 경제적 인플레이션은 연간 3.7% 상승했으나 사회적 인플레이션은 5.4% 상승했음

10)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판례법을 따르는 보통법 체계(Common Law Systems)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인플레이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성문법(Civil Law) 체계를 가지고 있음